

올 홍콩항셱지수 10% 급등... 中, 리오프닝·경기부양 기대감

중국 당국, 빅테크 규제완화 조짐에 상하이 지수 3.43%, 심천 4.63% ↑ 중학개미, 소비자재·태양광 기업 매수

중국 주요 지수가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정책으로의 선회 이후 급등하고 있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거둬들이며, 리오프닝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다.

16일 홍콩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1월 1일~13일) 홍콩항셱지수(HSCEI)는 10.24% 치솟았다. 같은 기간 중국 본토의 상하이종합지수는 3.43%, 심천종합지수는 4.63% 올랐다.

주가 상승 배경으로는 시진핑 3기 정권의 경기부양 기대감,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에 대한 중국 당국의 규제 완화 조짐 등이 꼽힌다. 지난 9일 중국

〈국내 투자자 중국 및 홍콩 증시 순매수 상위 종목〉 (기간: 1월 1일~13일, 단위: 달러)

순위	종목명(중국)	순매수 금액	순위	종목명(홍콩)	순매수 금액
1	귀주모태주	560만	1	텐센트 홀딩스	837만
2	창신신소재	1744만	2	알리바바 그룹 홀딩스 ADR	453만
3	토보장식재료	87만	3	메이투안	397만
4	웅기실리온소재	71만	4	이해국제홀딩스	272만
5	화유코발트	70만	5	알리바바 건강 정보 기술	232만

/자료=한국예탁결제원

공산당 서기 겸 은행보험감독관리위 주석 귀수칭은 "14개 플랫폼 기업의 금융업 특별정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경제 안정과 부양을 위해 빅테크 지원에 대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지난 2년여간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민간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규제를 펼쳐왔다. 또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을 대폭 완화한

점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학개미(중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은 소비자재, 태양광, 이차전지, 정보기술(IT) 관련 기업을 순매수했다.

중국증시에서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중국 백주 1위 인지도를 가진 주류 제조 업체 귀주모태주다. 귀주모태주는 중국 내 대표 소비 판

련주로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코로나 19 봉쇄 상황 속에서도 견조한 판매량을 지켜왔다.

이어 ▲이차전지 분리막 업체 창신신소재 ▲판재산업 주도기업인 토보장식재료 ▲세계 최대 태양광 업체 웅기실리온소재 ▲코발트 광석 제련업체 화유코발트 등이다.

홍콩 증시에서는 시가총액 1위 IT기업인 텐센트 홀딩스를 가장 많이 순매수했다. 최근 중국 정부가 빅테크 산업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면서다.

이어 ▲중국 최대 핀테크 기업 알리바바 그룹 홀딩스 ADR ▲중국음식 배달 기업 메이투안 ▲튀김용 조미료 공급업체 이해국제홀딩스(중국 튀김 체인점인 하이디라오 자회사) ▲중국 헬스케어 기업 알리바바 건강 정보 기술 등이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정부 주도의 투자에 관심을 가지라고 조언했다.

정정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2023년 중국 경제 반등 필요성이 부각될수록 정부 주도의 투자에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1월 초에는 정부가 제시한 신에너지, 전기차, 반도체 등 육성산업 중심의 대응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인프라 부동산 등 투자 관련 업종에 대한 기대는 시기상조이며, 3월 양회에서 구체적인 목표가 발표된 후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철화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3월 양회까지는 경기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부양책이 출시될 것"이란 기대심리가 부각될 것"이라며 "이는 중국 주식시장의 저평가 해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中, 車 수출 54% ↑... 독일 제치고 세계 2위

차이나 뉴스 & 리포트

작년 2700만대 생산, 311만대 수출 1위 日 11월 누적판매량 320만대

독일 지난해 수출량 261만대 그쳐 몇년안에 中, 세계 1위 타이틀 달 듯

중국이 지난해 독일을 제치고 세계 2위 자동차 수출국으로 올라섰다. 현재 1위인 일본과의 격차도 크게 좁히면서 몇 년 이내로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16일 중국자동차공업협회(CAAM)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해 자동차 수출은 311만대로 전년 대비 54.4%나 급증했다. 독일 앞서는 자동차 수출국으로는 일본에 이어 세계 2위 자리를 차지했다. 중국의 지난해 자동차 총 생산규모는

2700만대로 수출 비중은 11.5%다.

자동차 산업 데이터 제공업체인 마크 라인즈에 따르면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는 지난해 11월까지 누적으로 320만대의 차량을 수출했다.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이다. 2021년 일본의 자동차 수출 규모는 382만대다. 2022년 연간 실적이 집계되면 전년 대비로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에 따르면 독일은 지난해 261만대의 자동차를 수출해 전년 대비 10% 증가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수출량에 일본에 근접하고 있어 향후 몇 년 안에 자동차 수출국 세계 1위 타이틀을 거머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사모펀드 유니티의 카오화 파트너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강력한 수출 지원과 함께 중국 자동차

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자동차 제조국으로서 중국의 지위를 바꿔놨다"며 "특히 중국의 전기자동차는 일부 개발도상국에서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으며, 중국을 세계 자동차 수출국 1위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중국의 작년 전기자동차 출하량은 67만9000대로 120% 급증해 중국의 자동차 수출 호조를 이끌었다.

세계 최대 규모인 중국의 자동차 시장은 오랜기간 폭스바겐과 제너럴모터스, BMW 등 외국 브랜드가 독식해왔지만 BYD와 길리 같은 국내 브랜드가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중신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자동차 수출량이 오는 2030년에 550만대에 달할 수 있으며, 이 중 250만 대는 전기자동차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1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100회 브뤼셀 모터쇼에서 방문객들이 BYD 전기차를 살펴보고 있다. /신화·뉴스

UBS 풀공 애널리스트는 "중국의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이미 동남아시아에서는 확고한 시장 리더"라며 "경쟁자인 일본이나 한국보다 앞서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에 생산 기지를 세우고 차량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BYD는 올 상반기 테슬라를 앞서고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로 올라섰다. BYD는 지난 10월에는 인도에

서 전기차 SUV인 아토3를 출시했으며, 싱가포르와 브라질 등 해외 시장에서 판매를 본격화했다.

보조금과 소비세 감면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중국 자체 전기차 업체들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중국에는 현재 약 200개의 전기차 업체가 있으며, 2022년 국내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84.7%에 달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직인생략"
안산서부새마을금고 4차 공고문
 안산서부새마을금고는 경영합리성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건설을 매각한다.

-아 래-

1. 기본정보

자산구분	비영리민간단체(토지·건물)	매각방법	경매합격방식
채권유형	현상채권(각 호수별) 매각	참가자격	자연인 및 법인등
공통계약	가능	대인연계(인정) 가능	가능(유연계약)
유연계약	불가	담당부서/문의	경영지원팀 (031-492-5544)
지정계약	계약: 새마을금고(0395-09-04037-1) 예금주: 안산서부새마을금고		
입찰여부차별사항	호수별 개별 매각		
	① 서산시 구문구 신도림동 412-3외 신도림동(41)용 제1호 106호		
	② 서산시 구문구 신도림동 412-3외 신도림동(41)용 제1호 108호		

2. 입찰물건의 표시 및 최저입찰금액

호수	건물면적	토지면적	구조·용도	현황	최저입찰금액
제1호 106호	148.64㎡	2,521㎡(27.59㎡)	철근콘크리트조	양평중	1,640,250,000원
제1호 108호	112.36㎡	2,521㎡(20.86㎡)	근린생활시설	양평중	1,166,400,000원

3.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출기간: 2023.01.27.(금) 12:00~14:00

4. 입찰등록비

입찰참가신청서공통입찰참가신청서(당첨고소정서용), 입찰서(당첨고소정서용), 입찰유사(당첨고소정서용), 입찰환인(당첨고소정서용), 정정제(이행사실서표준안)당첨고소정서용, 인감증명서(당첨고소정서용), 사증인감증, 주민등록등본(당첨고소정서용),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당첨고소정서용), 위임장(신분증사본), 위임장, 인감증명서.

5. 매각개시일: 2023.01.27.(금) 14:00

6. 매각(경매)장소: 본 금고 회의실.

7. 매수신청보증금: 입찰가액의 10% 또는 10억 이상은 현금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로 함.

8. 매수신청보증금의 귀속에 관한 사항: 매수신청자가 소정의 기입(후)입찰로부터 5일이 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은 안산서부새마을금고에 귀속됨.

9. 매각(경매)보증금 제외의 납입기한 및 방법: 1) 매각(경매)보증금: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 2) 매수신청보증금: 매각(경매)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 3) 잔금: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잔금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로 납부함)

10. 기타 유의사항: 1) 현 시점상 호수별 입찰(경매)방식. 2) 매수신청자는 인·사·계좌를 송금하여야 하며, 입찰금(당첨금)은 매수신청자가 부담으로 함. 3) 입찰(경매) 보증금은 매각(경매)에 포함하여 매각. 4) 건물본 부가치세는 매각(경매)에 포함하지 않고 낙찰 후 본금과 회계계정으로 상환하여 결정. 5) 그 외의 사항은 본 공고 규정을 준수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공고 영문영역문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01. 17.
안산서부새마을금고 이사장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 해제되나... 오늘 논의

중대본, 설 연휴 기간 조정여부에 관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가 이번 주 본격 시작된다.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자가 지속 감소하면서 정부가 기준으로 제시한 지표 대부분을 충족하고 있어 설 연휴에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16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7일 오후 4시 열리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지표 상황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열리는 첫 자문위원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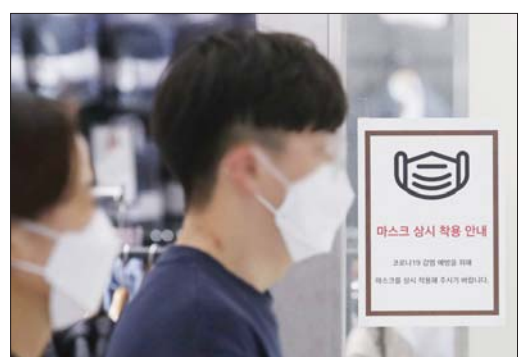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두 단계에 걸쳐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 고위험 상황을 제외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인 1단계 전환 기준으로는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개가 제시됐다. 4개의 지표 중 2개를 충족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논

의를 시작할 수 있다.

지난 주 기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등 3개를 이미 충족했다. 일평균 확진자 수는 최근 3주간 6만5530명→5만9239명→4만1968명으로 매주 1만명 가까이 지속 감소 추세다. 중환자실 가동률 역시 지난 해 8월 19일 이후 50%를 넘는 적이 없고, 주간 치명률 역시 지난해 7월 이후 정부가 제시한 기준인 0.1%를 초과하지 않았다. 마지막 변수로 꼽혔던 중국발 유행도 누적 확진자 수가 500명대, 양성률이 10%대로 안정적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설 연휴 전 후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가 1단계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건은 충분히 마련됐다 평가했다.

정재훈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은 "2주 전부터 지표들이 좋아지고 있고, 중국의 요인도 실현된 위협은 아니다"라며 "설 전에 어떤 정책을 발표하든, 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에 대한 논의를 하루 앞둔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몰 내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

이후에 시기를 못 박든 간에 이미 시기는 거의 다 됐다"고 말했다.

다만, 해외 상황을 고려하면 시간을 좀 더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시점에 대해 "해외 요인이 없다면 저는 마스크 의무 해제는 다음 단계로 내려가도 된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국내 여건은 당장 만족이 됐다 하더라도 해외적인 외부 요인들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보면서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